

제1망월묘지, 지출 서류 없고 이사장 퇴직금은 2배 지급 '홍청망청'

광주시, 위탁업체 관리 소홀 도마에

강은미 시의원 "제 할일 않고 관리비 수납 법제화 준비만"

광주시가 위탁한 광주시립 제1망월묘지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강은미 의원(민노·서구 4)은 17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지난 33년 동안 위탁해 온 시립 제1망월묘지의 운영업체가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고, 이사장의 퇴직금을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광주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 채 매월 관리비 수납을 법제화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립 제1망월묘지 수탁업체인 (재) 광주무등묘원 측은 올해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을 본봉에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등 각종 수당으로 950% 넘게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장과 관리부장은 3년10개월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법적 산출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또 각종 고가 지출에도 영수증조차 첨부하지 않았으며,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월말 발급되는 카드매출 영수증을 붙여놓는 등 증빙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할 때 개인의 용도인지, 공공의 용도인지 분별할 수 없고 모든 지출에 의심이 든

다"며 "매년 1만원의 관리비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무등묘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았고, 규정에 어긋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976년 (재) 광주무등묘원과 시립망월묘지공공원 관리협약을 최초로 체결한 뒤 지난 2006년 2차 협약을 체결해 33년간 사무를 위임해오고 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강은미 시의원이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수상 관저에서, 말라카주가 추진하고 있는 4억달러 규모의 LED가로등 교체 및 말라카주 경관조성 사업에 광주지역 업체의 LED부품을 사용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말레이시아 가로등, 광주 LED로 교체된다

姜시장, 말라카주와 투자유치 MOU

강은미 광주시장이 미국 투자유치에 이어 LED 가로등 부품 수출을 지원하고 나섰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말라카주를 방문해 양 도시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말라카주가 추진하고 있는 4억 달러 규모의 지능형 LED 가로등 교체 및 말라카주 경관 조성사업에 광주지역 업체의 LED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말라카주의 녹색성장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국내 LED업체의 사업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해부터 말라카주와 협상을 벌여왔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로 차질이 빚어지자 광주시에 지원을 요청, 강 시장이 직접 말라카주를 방문해 주 수장과 협상을 하게 됐다. 말라카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 시가지의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4억 달러규모)하고, 말라카주의 경관을 LED경관 조명으로 바꾸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과 시가지 광고시설을 모두 LED로 교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양 도시간 우호 관계가 구축되고 LED사업의 주체가 이 돈독한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말라카주의 공공기관 및 광고시설 LED 교체 사업에도 광주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부실"

진선기 시의원 "5천 384억 소유, 월수익은 고작 160만원"

광주시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활용방안 없이 무단 방치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선기 시의원(민중·북구 1)은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폐교나 이전기관 등 광주시교육청의 불용재산은 광주시 동구 동명동 소재 구 교육과학연구원과 구 광주여고(동구 장동), 구 과학고(남구 주월동), 구 지원중(동구 소태동), 구 정덕

유치원(북구 북동) 등 총 5건으로 재산총액만 384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활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구 교육과학연구원과 구 광주여고 등 단 2곳으로, 주차장 임대 등을 통한 월 160만원 수입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곳은 매각이나 활용방안 없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이 중 지난 2003년 이설된 구 정덕유치원은 그동안 7차례나 유찰돼 현재 무인경비업체가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교육과학연구원도 3차례나 유찰된 이후 인근 교

회 주차장으로 임대되고 있으며, 구 과학고나 구 지원중은 자체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 또한, 2011년 이설되는 광주교육연구원 사후 부지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진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관리 기본정책은 유지나 보존이 아닌 활용 위주의 관리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은 폐교나 이전기관 계획 수립시 매각이나 자체활용 방안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며 "구 과학고 부지의 경우 도시관리 부속한 남구의 여건을 감안해 도서관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축산분야 10년간 2조원 지원

한·EU FTA 대책, 영농상속공제 10억까지 비과세

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가 가장 큰 축산분야에 10년 동안 2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과 의류기기 부문에 대해서도 5년 동안 각각 700억원, 1000억원 수준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엑스센터에서 FTA 국내대책위원회 열고 축산농가의 영농상속공제액 상향과 학교유류공제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과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할 방침으로 15년간 누적 피해규모로 추정되는 2조원 규모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양돈 부문은 소모성 질환 백신지

원을 통한 질병근절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우수종돈 공급 및 가축노역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낙농은 매년 발생하는 20만t의 인여원유(국내 생산량의 10%)를 내년부터 가공원유로 공급하고 학교유 유류공제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유류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축산농가의 기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되므로 영농상속액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연합뉴스

가곡·대목장·매사냥 유네스코 등재 결정

시조를 관한 반주에 맞춰 부르는 가곡과 대목장, 매사냥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16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가곡, 대목장, 매사냥을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사냥은 한국 등 11개국 이 동참해 UAE가 대표 등재를 신청했다. 가곡은 판소리, 민요, 잡가와 구분되는 정가(正歌)며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다. 이로써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이 등재된 것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차등무 등 모두 11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인류무형유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협약' (UNESCO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이 정식 명칭이며, 1997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급격히 소멸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연합뉴스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특혜 의혹

이정민 도의원 제기

전남도가 수도권에 건립을 추진중인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의 민간사업 투자자 선정 과정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이정민(보성·1·민노) 의원은 17일 열린 경제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민간사업 투자자로 A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도움을 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특혜 의혹과 관련, ▲전남도가 센터 건립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지만 농수축산물 판매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A건설업체 컨소시엄만 응모해 선정됐다는 점 ▲A 컨소시엄에 포함된 B유류업체가 기존 전남 농수축산물 직관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거

나 타 지역의 경쟁 농산물을 팔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물의를 빚었던 업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또 이 민간업체가 사업자 선정 뒤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같은 건물 지하에서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유통센터 운영을 위해 사업 신청자를 '농수축산물 판매'를 1년 이상 운영하거나 운영 실적 갖춘 판매법인을 참여시킨 자로 제한한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환대(곡성·민중) 의원은 "100억 원 규모 지하3층·지상 5층 건물을 지어놓고 전남 농산물 판매장은 1층에만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1차 공모와 재공모에 A건설 1곳만 응모해 이 건설사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심의 절차를 거쳐 건축·운영사업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지 기자 dok2000@

"북한 풍계리서 핵실험 가능성"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영국의 군사정보회사인 IHS 제인스의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제인스가 북한이 작년 5월 2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 주변 시설에서 테널을 굴착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위성사진을 16일 발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제인스의 전문가가 미국 디지털글로브사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에 지하 핵실험장 주변에서 차량의 이동과 시설의 변화 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했고, 광도를 파면서 나온 토석류가 폭 12m에 걸쳐 쌓여있는 것도 확인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핵실험장의 남북 150m 지점에 새롭고 굴착한 토석류가 3천m 쌓여있는 것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HALLA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촌, 과수원, 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 시장에서 배송할 때도~ 공장, 창고에서도~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월 전기로 5,000원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 월 전기로 약 5,000원 정도로 부담이 적음
-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소음과 진동의 거의 없다.

원벽한 사후 관리 시스템

- 국내 제조 생산을 통한 안정성 및 내구성 확보
- 전국 AS 네트워크를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

장기저리 농협융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장기저리융자,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

취급점 · 영업사원 · 딜러모집

농기계 관련 사업자 · 유사업종 경험자

차별화된 안전과 실용성

- 버튼식, 다이얼식 조작패널, 배터리 잔량 표시 램프
- 초절전 고효율 LED 전조등, 방향지시등 채택
- 물품 수납이 가능한 시트박스
- 한번 충전시 50km 운행
- 고강도 안전 캐노피 적용(옵션 사항)
- 최대 200kg까지 적재 가능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자금 가능

민음과 화합으로 변형하는 한라그룹 **한라웰스텍(주)**

TEL 062-956-8823 · 061-852-8896 H.P 010-9468-3282

PREMIUM BUFFET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다들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 - 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